



www.peaceone.org

평화누리 통일누리

2017년 9월 Vol.168

현장_사드가 소성리를 짓밟고 들어간 날

평화는 지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사진] 18시간, 그 후
잊지않게 남깁시다! 소성리의 밤

특집_故 조영삼 열사

애도 성명, 고인이 남긴 글
[사진] 시민사회장
[추모시] 평화의 바다로 먼저 가신 님께

현장_제주의 군사기지화
기획_2018년 국방예산 분석
지역 소식

2017년 9월 통권 168호

평화누리 통일누리

명, 매일 자팡이를 짚고 다니는
소성리 할아버지가 9월 7일 새벽이
지난 후 명투성이 손을 보여주었다.
손자같은 경찰들과 드잡이하며
생긴 명보다 가슴에 든 명이 더
아프다. (사진: 유정섭)



01 현장_사드가 소성리를 짓밟고 들어간 날

평화는 지지 않는다! + 이석주, 임순분, 박태정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 황동환

[사진] 18시간, 그 후

잊지 않기 위해 남깁시다 + 조은학, 신재훈, 정덕인, 손기종

소성리의 밤 + 김동건



12 특집_故 조영삼 열사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 선종 애도 성명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 故 조영삼

[추모시] 평화의 바다로 먼저 가신 님께 + 고희림

[사진] 시민사회장 현장 / 남겨진 이들의 다짐



15 현장_제주 군사기지화

미국의 군사전략과 제주해군기지, 강정지킴이들의 활동 의미 + 최성희

또 하나의 강정해군기지 성산 제2공항, 강원보 집행위원장 인터뷰 + 김강연

24 기획_2018 국방예산 분석

국방개혁과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내년도 국방예산안 + 박기학



33 지역소식

광주/군산/김제/대전/순천/부산/서울/마창진/서울남부/익산/인천/전주

39 감사합니다 회비와 후원금(8월)

평화를 지지 않는다!



(9/7 오전 10시 소성리(사진 : 오마이뉴스))

“어제 오후 2시 집회부터 시작하여 18시간이나 우리들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4월 26일엔 1시간만에 다 밀려났지만 오늘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18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뜻을 모아주시면 저희 주민들은 사드가 한반도 이땅에서 철거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뿌리 뽑고 미국으로 돌려 보내겠습니다.” (9/7 이석주 소성리 이장)

“며칠동안 우리 주민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치면 울었습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사드가 들어오는 꿈을 꾸고 맨발로 마을회관 앞까지 뛰어나오고, 사드 막아야 한다고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좌절하고 눌러 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손을 잡아주신다면 이제 긴 싸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드 철거되는 그날까지, 1년이든 2년이든 긴 싸움 준비해서 사드 뽑혀나갈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9/16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여러분 사드 빼낼 때까지 같이 가실 거죠? 정말로 이 사드는 대한민국에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까짓거 지금보다 더한 것도 빼냈는데 사드 빼낼 수 있습니다. 사드 박혔다고 해서 실망하고 미국놈 겁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드는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꺼내기 수월합니다. 사드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많은 이들이 아는 이상 빼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드 다 들어가니까 보상 얘기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사드가 필요 없는데 무슨 보상이 뭐 필요합니까? 사드 갖다놓고 보상 얘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반도 어디라도 사드 우리 힘으로 꼭 막아냅시다!” (9/16 박태정 노곡리 이장)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 이 글은 9/16 소성리 5차 평화행동에서의 연설문을 다듬은 것입니다.

황동환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대구평통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설마했습니다. 혹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어찌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경찰이 시민들을 짓밟았습니다. 지난 9월 7일 새벽, 문재인 정권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 준 촛불시민들을, 민주평화시민들을,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을 방패와 군화발로 마구 밟아 버렸습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씨가 될 지도 모를 미국산 전쟁무기 사드를 막고 평화를 지키려고 나선 주권자들의 절규에 찬 호소와 가냘픈 몸부림을 잔인하게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군사주권도 없는 이 나라의 서글픈 현실에서, 내 나라 내 땅을 지키겠다고 달랑 내가 가진 몸동아리 하나로 미국의 군사패권 세력에 목숨을 걸고 맞선 착한 백성들 500여명이 그 스무배가 넘는 경찰병력에 의해 뜯겨나가는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시다.

시민들 수십 여 명이 부상당했고,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고자 함께했던 종교 성직자들은 능멸당했습니다. 시민들이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낄만큼 폭력적으로 자행된 경찰들의 진압과정에서 시민들의 천막 다섯 동이 흔적도 없이 뜯겨져 나갔고, 기독교의 천막이 작살

났으며, 천주교의 천막을 칼로 난도질하고 경찰의 군화발로 사정없이 짓이겨 놓았습니다.

문재인의 경찰병력이 이 곳 소성리에서 자행한 만행! 총과 칼을 들지 않았을 뿐, 제2의 5.18 광주시민 학살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문재인이 부르짖던 인권경찰의 모습이 고작 이런 거였습니까?

시민 여러분! 그 날 새벽 내내, 8천명의 경찰병력에 맞선 우리에게는 상대의 폭력을 방어할 방패도 헬멧도 없었습니다. 손과 팔을 옆의 형제자매들에게 서로 맡긴 채, 평화를 부르짖었고, 전쟁무기 배치를 반대했을 뿐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군사패권을 행사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전쟁공동체로 엮여,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중국과 러시아와 대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요! 사드가 배치된 이 곳 소성리는 그래서 유사시, 상대국의 제1공격 타겟이 되어, 초토화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드 한국배치는 미국이 개입하는 분쟁지역에 시퍼런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국이 시키는대로 동원되는 몸쓸 상황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요!

지난 9월 7일 사드 잔여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되면서, 사드 한 개 포대가 저 위 골프장에 터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반도 주변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가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그들 나라의 눈치를 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패권다툼의 전장터로 만들어서는 아니되겠다는 처절한 역사적 반성에 바탕한 호소이자 외침입니다.


다시, 한반도에서 무력행사가 용인되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번에 대량살상이 가능한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 재래식 무기로도 5백만명의 사상자를 냈던 6.25 한국전쟁은 오히려 낭만에 가깝다고 여길지도 모를 참혹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군사동맹체들간의 대결과 적대정책을 심화시키고, 신냉전체제로 향하게 할 사드 한국배치로 촉발될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패권놀음에 이 땅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민족공동체가 파국을 맞을지 모를 일인데, 이 상황을 어찌 낚 놓고 바라보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우리 민족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사안입니다. 내 목숨이 달린 문제이고, 나의 가족이, 내 이웃이, 우리 후손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드 배치를 강행한 미국의 입장만 굴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배신감을 넘어 참담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9월 7일 소성리에 모인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자위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뽑아준 주인들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경찰과 문재인 정권은 그 날 새벽 내내 국민을 향해 벌인 작전으로 사드 잔여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성공했노라고, 승리했노라고 희희낙락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오산이고,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의 싸움에서 결코 진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압도적인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몸뚱아리 하나로 막아선 우리를 사정없이 내동미치고, 팔과 다리를 꺾었을진 모르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꺾진 못했습니다. 이는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에 맞선 평화의 의지요, 무력진압에 맞선 사무여한의 끈은 정신이요, 이웃과 공동체를 염려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경찰들은 결코 우리를 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드를 뽑아내고 평화를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정의와 따뜻한 인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물러서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 평화를 되찾는 일에 마을주민들과 평화시민들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18시간, 그 후

갈비뼈 골절,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자만 70명,
주민과 성직자를 예외 없었다.
차량 31대 파손, 천막 6동 완파 등 재산피해만 9
천여만 원... 그러나 사드 배치로 인한 국익훼손과
평화 위험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옥죄게 될 것
이므로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잊지 않기 위해 남깁시다.

2017년 9월 7일, 사드가 소성리를 짓밟고 들어간 날!

2017년 9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가 조금 지난 시각. 며칠 전부터 감돌던 소성리의 전운이 이날 결국 현실이 되었다. “긴급! 국방부 두 시, 기자에게 사드 반입 통보! 6시보다 더 일찍 소성리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보다 일찍 통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소성리로 달려와 주십시오!” 문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어떻게든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서 막아야 한다...’ 소성리로 달려가는 내내 이 생각뿐이었다.

소성리로 향하는 도로 곳곳은 경찰 차량이 줄을 섰고, 렉카차와 용도를 모르는 차량들이 뒤를 이었다. 나의 비장함에 비해 경찰들은 표정들이 여유로웠다. 마음이 아팠다. 같은 나라에 살고, 같은 상황을 직면하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데 이렇게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차단된 주 도로 대신 농로를 통해 들어간 오후 5시 소성리는 소리없이 분주했다. 마을회관 부엌에서는 아는 이들이 벌써 주먹밥을 만들고 있었다. 잔멸치를 볶고, 한쪽에서는 밥을 얹히고, 또 한쪽에서는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어 밥을 식히고... 나는 그곳에 끼여 주먹밥을 뭉쳤다. 종이컵 하나에 주먹밥 한 덩이씩. 대형 밥솥 2개를 씬 없이 돌려 천 개 이상을 만들었다. 밥이 채 식기 전에 뭉친다고 손바닥은 별정계 달아올랐지만, 모두 뜨거운 줄도, 힘든 줄도 몰랐다.


갑자기 밖에서 고함이 들렸다. “모두 나오세요. 저들이 오고 있습니다. 모두 나와서 앉아 도로를 막아주십시오!!” 용수철 튕겨나가듯 모두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도로 빈 곳 여기저기를 찾아 앉았다. 나는 도로에 세운 차량 중 하나에 등을 대고 앉아 누군지도 모르는 옆 사람과 스크럼을 짜고 구호를 외쳤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박힌 사드 뽑아내고, 오는 사드 막아내자!!” 비는 오다말다 하고, 경찰 차량에서는 계속 ‘불법’이라며 검박하고, 바로 코앞에는 ‘하이바’를 써서 표정을 읽을 수 없는 경찰병력이 철벽처럼 서서 진압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다.

사드가 들어갈 마을회관 앞 진입로에는 십여 대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놓여있었고 그 차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차량 밖에 서 있는 이들과 긴 PVC 같은 것에 팔을 끼우고 있었다. 경찰이 렉카로 차량을 들어낼 경우 몸으로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청심환을 권했다. 얼마나 두려울까... 차마 그들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두려움은 눈을 감아

도 전해졌다. ‘오... 하느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절로 터져나왔다. 무서웠다. 무수히 집회를 다녀봤지만, 400명을 에워싼 8,000여명의 경찰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고 버티는 것만 가능한 자세로 마주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다. 목숨 걸고 사수했던 전교조 결성 때인 1989년 5월도 이렇게 공포스럽지는 않았다. 목이 터져라 외치던 구호 뒤로 드디어 저들의 진압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먼저 길 옆 천막을 침탈했다. 그 천막은 기독교와 천주교 천막이었다. 그 안에 있던 십자가와 성경, 묵주들은 경찰들의 군홃발에 짓밟혔다. 그들의 폭거는 예상을 초월했다. 온몸으로 막던 남성들은 끌려 나가고, 들러 나가고, 밟혀 나가고.... 바닥에 앉아 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손가락지를 풀지 않고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며 공포와 싸우는 것밖에 없었다. “사람 다친다~~ 사람 다친다고~~~~” 그렇게 나도 여경 대여섯 명에 의해 들려 어둡고 컴컴한 곳에 떨어졌다. 분해서 눈물이 핑 돌았다.

정신 차리고 마을회관 앞으로 오니 무대 차량 앞쪽으로 사람들이 늪다시피하며 앉아있었다. 빈틈을 비집고 다시 들어갔다. 소성리 어머니, 형님들과 원불교 여교무님들이 대부분이었다. 밖에 서 있는 이들에게 소리쳤다. “이곳으로 들어와 앉아주세요. 이 차량을 사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십분을 저항하던 내 앞의 원불교 여교무님은 ‘24기’ 여경 기동대에 무지막지하게 끌고 나갔다. 교무님의 치마가 들춰지고 하얀 속살이 드러났다. 위에서 누군가가 목놓아 외쳤다. “손 대지마!! 야, 이 **년들아!! 손 대지 말라고.....” 뒤이어 끌려나오던 나는 그 소리에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미쳤어... 미쳤어... 문재인은 이제 끝이야...’

정확히 8시 12분. 내 눈 앞으로 사드가 들어갔다. 그 뒤를 이어 군용 트럭과 덤프 트럭, 뒤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를 차량들이 수십 대 들어갔다. 그 트럭 위로 물병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긴 행렬을 덤덤하게 바라만 보았다. 출근은 이미 한참 넘긴 시각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얏다. 무심하게 밖을 보는데 저 멀리서 하나 둘 걸어오는 분들이 보였다. 긴 나무막대를 지팡이 삼아 허우적허우적.... 아마 소성리로 달려와 달라는 호소에 새벽길을 한달음에 왔지만, 길이 막혀 걸어걸어 들어오는 분들이라. 용봉 삼거리를 지나는데 길 양 옆 수 킬로미터로 승용차들이 서 있었다. 모두 소성리를 위해 달려온 이들이 세워둔 차량이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길목마다 싸우고 싸워 소성리를 지키기 위해 온 연대자들이었다.

사드반대는 성주만 하는 싸움이 아니다. 이처럼 평화는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구호가 아니라 목숨을 건 실천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차를 몰고 소성리를 벗어나는 길.... 난 결국 울음을 쏟아내고 말았다.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 성주주민 조은학


야수와 같이 달려든 경찰! 밧줄을 묶고 저항한 우리!

9월 6일 오후 4시경 상황실 앞부터 삼거리 보건소 앞 까지 대열을 지어 행진을 진행하였다. 마을회관 앞과 주변에 연대하러 온 시민들에게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 안 쪽으로 모여 줄 것을 안내하는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 사이 차량과 차량사이를 고정시키기 위한 용접 작업이 진행 되었다. 용접이 진행되는 동안 큰 피켓을 가져와서 차량과 차량 사이 앞에서 용접작업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들고 있었다. 그러나 용접기 이상과 전기전압이 낮아 용접은 쉽사리 진행이 되지 않아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러다 어찌어찌하여 새로운 용접기와 용접경험이 있는 회원의 도움으로 용접은 마무리 되었다.

비는 계속 추적추적 내리고 나누어 주는 비옷을 입었다. 겁에다 주먹밥을 나누어 주어 빗속에서 주먹밥을 먹으며 투쟁의지를 가다듬었다. 상황실 앞 쪽에는 주민들과 연대단위 시민들이 연좌를 하였고 용접되어 있는 차량 앞 쪽으로는 부녀회원들과 주민들 그리고 원불교인들이 연좌에 들어갔다. 용접되어 있는 차량 문 앞과 뒷 문 쪽으로 부산회원 대구회원들과 함께 도열하여 차량을 호위 하였다. 강정 투쟁 때 정문 앞에서 몸에다 밧줄을 묶고 싸우던 것이 생각나서 부산, 대구 회원들에게 제안을 하였고 회원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여 마을회관 무대 옆에 있던 밧줄을 구해 6명이 차량 앞 바퀴에 밧줄을 고정시키고 서로의 몸에 밧줄을 묶고 투쟁을 준비하였다. 11시가 넘어가며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다.


경찰병력이 배치된 도로 안쪽에서 진입 할 것으로 예상 했는데 상황실 쪽 천막을 철거하면서 진입하기 시작하였고 시민들은 앞 사람의 몸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발로 걷어차며 격렬하고 치열하게 온 몸으로 저항하며 투쟁하였다. 투쟁은 밤새 진행되었고 앞에서 투쟁하던 주민과 시민들이 새벽 5시가 넘어가면서 뜯겨 나가기 시작했다. 이제 밧줄로 감고 투쟁하는 우리회원들에게 경찰이 진입하였고 밧줄 맨 앞에 있던 부산 회원이 평소 요가로 단련 된 몸으로 온 몸과 손으로 저항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 뒤에 대구 회원들과 다른지역 회원들도 끝까지 온 몸을 던져 저항하며 치열하게 투쟁하였다. 마지막은 사드 반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그야말로 경찰은 야수와 같이 달려들었다. 경찰의 모습은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다. 어떻게든 사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야수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련하고 슬프고 분노스러웠다. 그렇게 투쟁은 진행 되었고 사드 추가 반입차량이 보이기 시작했다. 너무나 분통하여 주변에 있던 무엇이던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다. 그렇게 투쟁은 끝났다. 추가 반입저지를 위한 작전은 치밀했고 실무자들의 온몸을 던진 헌신성, 책임성에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 없다.  | 서울 신재훈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너무 원통하고 분하다. 추울까봐 바지를 2개나 입고 있었는데 경찰 폭력에 바지가 벗겨지고 속옷이 찢겨지고, 신발은 잃어버리고 온몸이 아프다. 남편이 몸조심하라고 특히 왼손 손가락을 기브스한 상태니 특히 조심하라고 했는데, 정말 사무여한의 정신대로 싸운것 같다. 옛날 노동조합할 때도 이정도 폭력은 아니었던 것 같다.

소성리에 올때 원불교 교인 9분과 함께 왔는데 평통사 회원인가 물어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사드 투쟁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평통사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연락처 받았으니 이후 꼭 가입시킬거다. 몸도 마음도 추스려서 더 열심히 싸울수 있도록 하자.  | 부천 정덕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상이 깨진!

평소에 소성리에 자주 가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시점에는 꼭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직장 일이 있지만 연행된다 해도 48시간이면 나온다고 하니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행에 대해 30대 젊을 때는 오히려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두려움은 없다. 그러나 체력이 달려 힘들었다. 나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정말 온 몸을 던져 열심히 싸웠다. 사드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치열하게 싸울 수 없다. 할머니들이 통곡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났다. 그런 마음이 투쟁력을 불러낸 것 같다.

내 옆에 있던 대구의 한 여성 회원은 경찰이 오기 전까지 덜덜 떨어서 팔을 꼭 붙들어 주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이 다가오자 너무나 용감하게 싸워 깜짝 놀랐다. 이번 투쟁에는 진보 진영의 가장 전투적이고 진보적인 부분이 참가한 것 같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게 아쉽다. 이번 투쟁을 통해 명확히 정리된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상이 깨진 거다. 나는 이번 투쟁에 참가한 것이 자랑스럽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이 투쟁에 붙여나가야겠다. 가족들도 소성리로 데리고 가봐야겠다.  | 부산 손기종

소성리의 밤

김동건 신부 인천평통사

소성리 작은 마을이 침탈 당한지도 이 글을 쓰는 지금 열흘의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더 기나긴 시간이 우리를 기다림을 느낄 수 있다.

설마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다. 문재인은 아닐 거라고들 말했지만 틀렸다. 지금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떠올리며 그래도 문재인이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번엔 인정하셔야 한다. 이번 선택은 잘못된 것이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늘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해왔다. 하지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졌다는 건 싸웠다는 것이고 싸우지 않았다면 지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멋지게 잘 싸웠다. 그리고 이미 이겼다. 중요한 건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가 아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졌다. 과정도 틀렸지만 무엇보다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길을 걷고 있다.



제대가 뺏기고 십자가가 부러지고 성직자들이 끌려나간
9월 7일 새벽, 소성리


9월 6-7일 그곳에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감사한 마음뿐이다. 저보다 더 긴 시간을 그렇게 지켜왔을 것 같고 저보다 더 열심히 그런 자리에 함께 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속 신의 소리에 응답한 그 선택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다.

그렇다. 조직과 체계로 이름 붙여진 종교가 아니더라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누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음을 그곳에서 함께 싸운 이들을 통해 보았다. 세상의 거짓을 넘어 자신의 한계와 상처를 넘어 그렇게 그들은 인권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과 선함과 공존과 사랑과 민주와 자주를 선택하였다.

저는 한 종교의 종교인으로서 지금 생각해보니 그 자리가 하늘나라였구나 싶다. 그곳이 편안하고 여유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지만은 않은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기에 더 많은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좋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 함께 한 이들은 분명 다치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는 결코 흔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인류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당차게 내딛은 위대한 발걸음이었다.

인류도 대한민국도 사회운동도 종교도 보통시민도 무엇이든 누구든 위대하기 위해선 소성리의 밤의 기억해야한다. 악에 맞서 선을 외쳤던 밤. 그 외침은 사드 반입의 허탈함을 넘어 우리가 평화이고 선함을 온 세상에 드러냈다. 아직도 간혀있는 이들이 담장을 넘어 어떤 세상이 있는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소성리의 밤을 기억하는 이들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이미 새롭게 그리고 있다.

평화의 길. 이 길은 폭력과 억압과 무기와 거짓과 회유와 협박과 권력과 어둠으로는 오지 않는다. 선한 이들의 연대와 대화, 협력과 소통, 협상과 돌봄, 지지와 격려의 빛 가운데 온다. 문재인은 평화를 선택하라. 악의 연대를 끊고 선의 연대로 돌아와라. 그 길은 막다른 골목이다. 예언자는 시대를 보고 외친다. 무엇이 옳은지 선한지 함께 살 수 있는지 외친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외쳤다. 전쟁의 길은 또 다시 인류 공멸의 또 다른 역사일 뿐이라고 외쳤다. 그것은 경고였다. 권력자가 자신의 목숨의 반만 걸어도 평화의 길은 몇 백배 쉽게 올 것이다. 또한 안타깝게도 그 길을 걷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목숨 하나가 아무 효용성 없이 사라질 때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것임을 모른다.

평화로 가기 위해 소성리의 밤에 모인 이들처럼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계산과 실익을 잊어야 한다. 상처와 한계를 넘어야 한다. 거짓과 어둠을 물리쳐야한다. 평화를 외칠 때 모두가 살 수 있다. 평화가 생명이다. 평화가 기적이다. 평화가 부활이다. 평화가 하늘나라다. 평화가 전부다. 우리가 평화다.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 선종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름 없는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이 사드 반대를 외치며 분신 선종한 사태를 당하여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겨레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고독한 결단 속에 자신의 충심을 담은 유서를 다듬고 또 다듬었을 조영삼 님의 그 고뇌를 생각하면 우리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분신과 선종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 조영삼 님이 왜 이런 형극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까? 문재인 지지자인 그 분이 보기에 너무도 상식에 어긋나는, 미국의 압력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온 몸을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태의 책임은 무용지물이요, 백해무익이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사드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와 그 뒤에서 쫓불 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강박한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를 철회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한 조영삼 님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조영삼 님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 “사드 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쫓불 민심을 든든한 배경으로 흔들리지 말고 초심대로 밀고 나가 성공한 정권”으로 남기를 기원한 뜻을 깊이 새겨 사드 철회의 길로 돌아설 것을 촉구합니다.



“저의 산화가 사드 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된다면 ...”

약력 | 동국대 졸업 / 출옥한 비전향장기수 이인모 선생을 돌봄 /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장에 이인모 선생과 동행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1년 6개월 옥고를 치름 / 출소후 아르헨티나에서 사업 / 1995년 복으로 송환된 이인모 선생의 초대를 받고 방북 / 17년간 독일 망명생활 / 2012년 구순의 부모를 모시기 위해 귀국 / 연행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여 옥살이 / 출소후 밀양에서 사회활동 / 2017년 9월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에서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 / 9월 20일 오전 9시 34분 운명 / 향년 58세

재독 망명인 조영삼님(58세)이 9월 19일, 오후 4시 10분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잔디마당에서 “사드 가고 평화오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외치며 분신을 하였다. 입주사 직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껐고, 4시 18분 소방대원 출동,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인 20일 결국 운명하고 말았다. 이에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과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3일 시민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고 조영삼 열사는 분신장소인 누리꿈스퀘어 18층 잔디마당과 청와대앞 노제, 미대사관 앞까지 행진, 사드배치 저지투쟁의 최전선인 소성리에서 노제를 거쳐 고인과 유족들이 살고있는 밀양에 봉안되었다. 평등사는 장례식과 노제를 정성스레 준비하고 참여하며 유족을 위로하였고, 장례기금 모금에도 적극 나섰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사드는 안 됩니다”라는 고인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 활동에 참여하여 고인의 뜻인 사드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는 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2017. 9. 20.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故 조영삼 평화주의자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오래전, 독일에 있을 때부터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존경해왔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도 사드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긴장과 전쟁의 위험만 가중시킬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더 큰 그림이 있을 거라 생각도 해 보았지만 아무래도 이견 아닌 것 같습니다. 초강대국 미국과의 ‘밀당’이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밀리면 뒷감당을 어찌하시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남북경협, 평화통일, 동북아 균형자 역할 등을 통한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결코 전쟁방지나 평화를 지키는 무기가 아닐 것입니다.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가능성이 희박한 사드미사일 자체보다도 사드배치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엑스밴드 레이더의 감시망에 놓여있는 북한과 중국은 사드가 가동되는 시점부터 그들의 제1 타격 목표는 사드배치지역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ICBM은 중심이 짧은 한반도용이 아니라 대륙을 넘나드는 장거리용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 미국용입니다. 대통령님도 이런 상식적인 사실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배치’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사드배치를 앞당긴 것은 현실국제정치의 냉혹한 벽을 뚫지 못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님의 대화제의를 핵심협 등 엇박자를 놓고 있는 북한 당국에 있겠지요.

의도했든지 아니면 우연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북미간 적대적 공생관계’의 부산물인 사드배치로 인해 우리 민족의 미래에 먹구름이 잔뜩 밀려오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치킨게임의 결과는 남북 공멸의 길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매의 눈을 치켜뜨고 있는 일본이 보입니다.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당부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한때 보편적 정의와 인도주의적 차원

에서 인민군 종군기자 출신 이인모 선생의 손발이 되어 함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인모 선생은 분단비극의 후유증으로 자력으로는 단 한걸음도 걸을 수 없었지요)

당부 드리건대, 당신들이 즐겨 사용하는 ‘우리민족끼리’처럼, 말로만 ‘민족’, ‘민족’ 하지 말고 민족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민족의 운명은 우리민족끼리 합심하여 짊어지고 간다는 정신으로 미국과 양자간 ‘밀당’ 하기 전에 남북대화의 장에 나서기 바랍니다. ‘우리민족끼리’라 해놓고 이른바 ‘코리아패싱’은 안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권이 이명박근혜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것을 넘어서 길이 남을 촛불혁명정권입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기필코...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미국을 꿈쩍 못하게 하는 묘수가 남북대화 과정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신들의 ‘신념의 화신’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이인모 선생과의 인연으로 세상의 주변부를 떠돌며 인생행로와 역정이 여러 번 뒤바뀐 사람으로서 이런 부탁과 당부를 드릴 자격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인간적으로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내고 나서도 그리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산화가 사드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 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된다면 연연세세 가문의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의 자유인으로 살고자 했던 어느 이름 없는 평화주의자가 한 떨기 마지막 잎새를 떨굴으로써 이 땅에 평화를 기원한 나라, 대한민국을 알보지 말라고...


그는 백만 촛불혁명의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미국에게 당당히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촛불민심을 든든한 배경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초심대로 밀고 나가셔서 성공한 정권으로 세계사에 길이 남으시길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촛불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제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남북협력정책특보 들풀하나 조영삼 드림

덧붙이는 글

:저의 행동에 설왕설래 말이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의 자유인’으로 살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한 인생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직 이 세상 소풍 끝나지 않은 분들, 외람되지만 제 처와 어린 아들내미 부탁드립니다. 

평화의 바다로 먼저 가신 님께

고희림 시인 대구평통사

밟히고 눌리고 찢이고 부러지고
밟히고 눌리고 던져지고 부서지고
소성리는 죽을 힘을 다했으나
경찰은
비단통이 찬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소성리의 힘을 죽였습니다
님은 혼자서 죽었으나
님은 혼자서 가지지 않았습니다
님은 사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님은 죽을 때까지도
대통령에게 사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 어디에서부터 여기 소성리까지
언제까지나 지금껏 평생을
하마나 전쟁이 날까
하마나 살림이 풀릴까
하마나 민주주의가 될까
하마나 통일이 될까
하마나 사람같이 살아볼까
이런 생각뿐이었던 소성리였습니다

소성리에 우리들이 있었고
우리들에겐 소성리가 있었고
저 깃발이 저 천막이 저 기도가 저 지킴이가
저 컵라면이 저 생수가 저 쌀들이 있었고
오늘은 님의 활활 빛나던
몸의 기도가
소성리 심장 속에 통일의 약속으로 박혔습니다

사드를 피하는 포탄
포탄을 섬멸하는 사드
사람만 죽어나는 무기장사
한국이 미일 동맹의 돌마나라고
미국 MD의 최전방 기지라고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타격대상이라고
사드는 너무 비싸고 고물이라고

무기장사는 커미션이라고
커미션은 똥파리들의 잔치라고
한반도는 뒤돌아보지 않고 전쟁위험으로 접어들었다고

날날이 유서에 쓰고 싶었으나 꼭 참으며
미국한테 달려가는 대통령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미국땅인양 유유히 들어가는 사드를 보고는,
소성리 할매들 분통을 터는 살아서 볼 수가 없어
자신의 몸에 불을 놓아
사드를 데리고 님은 평화의 바다로 먼저 가셨
습니다



소성리 사람들은 두 손을 들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다리자 기다려보자고 외치며
촛불들이 양보한 대가로
낮 한자루같은 촛불들을 훔쳐
미국의 품에 안기다니요
소성리 천막들은 시체처럼 널부러져 있는데
언제랄 것도 없이 무기를 팔아주는
다시 중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으로 스스로 살아야 했으나
마을의 얼굴에 침을 뱉는 국가가 국가입니까
미국에게 묻고 미국에게 응답하는
국가는 우리에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최고의 창과 방패는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방패를 들고
통일의 창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님은 이를 알았기에
어린 아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평화의 제단 민족의 제단에
자신의 목숨을 올렸습니다

결코
버릴 수 없는 조상의 마을을 지키려
소성리의 원통을 함께 느끼며
영혼으로 사드를 막겠다는 결단에 대통령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님이 데리고 간 사드를 영원히
묻습니다
님은 끝끝내 사드를 데리고 가셨으니까요
죽음으로 영혼으로 사드를 막아내고야 말았
으니까요
부끄럽고 슬프고 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님과 함께 하고 싶을 뿐입니다



상암동 분신장소



사드가 배치된 소성리 롯데 골프장 앞 노제



천주교 신자였던 고인을 위한 발인미사



청와대 앞 영결식과 미대사관까지 행진





상암동 노제에서 낭독된 **남은 이들의 다짐**

故 조영삼 열사여!

민족의 고난을 체현한 이의 힘겨운 병수발도,
망명객의 신산스런 삶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통일의 열망을 한시도 놓지 않았던 님이여!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님이 소원하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 것으로 벅차게 기대했던건만,
미국의 압력에 속절없이 무너져내리고,
백해무익하고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강행하자


스스로 몸을 불살라 사드 철회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 님이여!
그리하여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을 든든한 배경으로
국민들을 믿고 기어이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랬던 님이여!

사드가고 평화오라!
당신이 화마에 쓰러진 이 자리에서 열사가 외쳤던 간절한 기도를
다시 듣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배려심 많은 동지인 '우렁각시'와 봉어빵 아들
'똥가리'와의 영원한 이별을 결단하며
우리 남은 이들에게 열사가 바랬던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오직 사드 철회!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평화!
우리 모두가 님처럼 사드 철회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신 게 아니었을까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의 최전선, 한반도 핵대결 격화의
최전선이 되어버린 소성리 밤하늘은
별이 유난히도 밝고 많습니다.
이제 소성리 하늘에 새로이 빛나는 별 하나가 보인다면
님께서 사드 철회를 위해 싸우는 주민들과 우리를 지켜주는
별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사드 철회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여!
당신이 이 생에서 하실 일은 마치셨으니,
이제 평안히 쉬소서!
우리가 님의 뜻을 따라 기필코 사드를 철회시키겠습니다. 

미국의 군사전략과 제주해군기지, 강정 지킴이들의 활동 의미를 짚어

최성희 강정지킴이

8월 26일, 오후4시 제주 강정마을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제주해군기지를 중심으로 바라 본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로 고영대 공동대표의 강의를 있었다. 이번 강의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신 최성희, 오두희 선생님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제주해군기지 반대 대책위 주최로 기획되었다. 관련하여 최성희 선생의 소감문을 싣는다. - 편집자 주

4시 15분에 시작되어 7시 가까이 끝나기 전까지 쉼 없는 강의였는데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만큼 고영대 선생님의 강의를 우리의 집중과 주의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실이 생각보다 무거웠고 따라서 우리의 결의가 더 높아졌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 길을 달려와 소중한 강연을 해주신 고영대 선생님과 평통사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비와 숙소를 마련해 주신 오두희 선생님과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에 감사드립니다.

▶ 1990년 냉전 해체 즈음 미군의 패권유지 전략은 제주의 경우, 공군 기지 제안(1987년), 해군 기지 제안(1993)과 무관하지 않다. 육지에서 평택기지 확장도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었다.

▶ 평택(공격)과 대구(군수지원)를 핵심으로 하는 주한 미군 기지 재편은 주일 미군 기지의 재편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 2006년 미국은 노무현 정부에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압력을 가하였다. 전략적 유연성은 대북 방어용으로 한정된 불박이 군대인 주한미군의 한반도 입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대만-중국, 중국-일본)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반기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을 어기고 전략적 유연성이 관철되도록 하였고 이의 공적(?)을 인정받아 이후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

▶ 해상에서의 전략적 유연성이 적용된 것이 대중국 전초기지로 된 제주해군기지이다. 제주해군기지는 중국의 북해함대가 남방으로 가는데 있어 길목에 있다. 미국 *서치타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를 ... 지역의 급변사태 때 기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술적, 전략적 지점.”(서치타 논문, 2013) 으로 본다. (*서치타 보고서 : Jeju Naval Base: Strategic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Commander David J. Suchyta, United States Navy, 2013)

▶ 김대중 대통령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조성태는 제주 해군 기지를 만들어 ‘불침항모’로 만들겠다는 단어를 쓴 적이 있다. 이는 제주를 군사기지화 하겠다는 발언이다. ‘불침항모’라는 단어를 처음 쓴 일본 총리였던 나카소네는 1980년 레이건 당시 일본 열도를 ‘불침항모’로 만들겠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 6월 22일 캐나다 배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왜? 캐나다 배까지 들어오나? 한국 전쟁당시 미국 주도의 유엔사령부가 결성되었는데, 이와 관련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유엔사령부 산하 9개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타이, 터키,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필리핀, 미국)과 다국적 훈련을 하는 이유는 미국이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를 계속 하려는 것이다.


▶ 한반도 주변 다국적 훈련, 한미일 연합훈련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그것은 집단자위권 행사로 나타난다.

유엔헌장 51조 : " 유엔헌장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 "

위에 보듯 유엔은 집단 자위권을 명시하지만 동맹을 명시하고 있진 않다. 집단자위권은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방어' 라는 식으로 최소한의 무력사용 근거를 두고 있지만 동맹은 "우적개념에 입각한 잠재적 전쟁 공동체"로서 공격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불법적이고 공세적이다. 동맹은 전쟁을 계속하게 하는 잠재적 공동체라 할 수 있다 (항상 적을 상정한) 동맹은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그런데 유엔을 통해 동맹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집단자위권을 유엔 헌장에 넣어진 것이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은 동북아에 대한 위협이다. 2015년 미일 공동비전성명과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 2013년 제주 동쪽, 일본 규수 서쪽 해상에서 ‘태평양 드래곤’ 이라는 한미일 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탄도 미사일 방어) 해상 훈련이 있었다. 사세보(강습함 주둔, 한국 전쟁 및 한반도 유사시 탄약 지급)는 제주와 위도가 같은 곳으로, 이와쿠니(미 해병대 통합 기지) 와 더불어 북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제주 한미일 해상 훈련은 제주해군기지가 동북아 지역 통합 BMD 거점임을 말한다.

▶ 사드 (레이다)는 미중간의 전략 균형 안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체제이다.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성주에 대한 선제 핵 공격 까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줌왈트는 미중간의 전략 안정을 무너뜨리기 까지는 하지 않는다.

▶ 우리의 과제는 단기적으로는 평택, 사드기지(성주), 제주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대중국 패권 거점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강정해군기지, 성산 제2공항

— 제주 제2공항 성산을 반대대책위 강원보 집행위원장 인터뷰

2015년 말, 국토부는 ‘제주 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성산을 온평리를 중심으로 한 일대를 제주 제2공항부지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이후로 1년 반 동안 해당 공항부지와 소음피해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은 주민동의 절차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공항부지 선정을 백지화하라며 반대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에 제2공항 반대운동에 나선 강원보님을 만났다.

“가장 기본적인 주민 동의, 협의 절차도 없었다. 그동안 제주공항 거론될 때도 성산은 단 한번도 거론된 적 없었다. 대정 알뜨르 비행장만 거론되었지. 그런데 갑자기 여기로 왔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 보고서인데, 제주공항이 포화상태가 될 것 같으니깐 어떻게 인프라를 확충할 것인가 용역을 준거다. 대안으로 현 제주공항 확충하는 것, 신공항을 크게 짓는 방안, 세 번째 제2공항 지어 두 개다 쓰는 방안이 있었는데, 제주공항 확충은 용두암쪽으로 환경피해가 심각해서 폐지, 신공항 인은 제주도민 반대를 근거로 도지사가 반대 의견서를 보내버렸고, 결국 제2공항을 짓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연구용역진이 31개 후보지를 1차 만들어 놓고 1차, 2차...찰칵 찰칵 자르는 요식행위 하고는 성산을 최종 후보지로 결론 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이건 완전히 부실당어리 용역이다. 성산에 공항을 하기 위해 환경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짜 맞추거다. 제주도는 안개가 서쪽에서 내륙 동쪽으로 갈수록 적어지는데, 후보지 중 동쪽 내륙의 정석비행장이 안개가 최고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웃긴 것은 안개 자료가 정석만 눈, 비, 바람, 태풍을 전부 안개 낀 날로 쳐서 33일로 썼



인터뷰는 강원보님 자택에서 진행되었다.

다고 국정감사에서 자백을 했다. 이렇게 해서 정석은 기상 점수 2점, 성산은 만점 이렇게 짜 맞추기로 보고서를 낸 것이다. 언론도 이런 내용을 파고 들어서 정부의 거짓말에 대해 문제제기 해줘야 하는데 그런 언론이 없다.

또 공항은 버드 스트라이크(비행기와 새가 충돌하는 현상)때문에 국제적으로 미 연방항공국에서 권고하는 할주로 끝에 철새 도래지까지의 거리는 8.5km이다. 8.5km 이내에는 공항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법 93조 보면 8km이다.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철새도래지가 성산 인근 하도리 철새 도래지다. 하도리 철새도래지까지 연구용역진들이 켜 것은 8.9km, 우리가 켜 것은 7.5km이다. 이놈들이 8.5km 넘길려고 일부러 그렇게 켜 것이다. 오조리 철새도래지까지 거리는 1.5km인데, 이 건 아예 쓰지도 않았다. 오류 투성이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성산을 환경성 점수 만점 줬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 이런 기초 조사도 안하고 갑자기 성산으로 온 거다.

문제인 대통령 공약이 ‘절차적 투명성 확보하고 지역주민과 상생을 전제로 제2공항을 조기 개항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드랑 똑 같다. 작년 국회에서 싸워서 부대조건 단 내용이, 기본 계획서 예산이 47억 원인데 이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부지 수용지역 주민과 소음피해 주민과 갈등을 해결하고 협의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이걸 달아 놓으니깐 우리랑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해서, 이장들을 모아 간단하게 간담회 형식으로 해놓고는 협의했다고 하면서 추진한다. 몇 이장님들이 이게 협의하는 거면 안한다고 했더니, 그 놈들이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 하고서는 그걸 협의라고, 절차를 지켰다고, 이걸 근거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 한 것이다. 순진한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만약 토론회 하는데 가서 막 싸우고 얘기하면 그것도 주민 협의가 되어 버리게 된다. 이게 꿈수다. 우리 그걸 아니깐 원천봉쇄했다. (8월 29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 설명회는 반대 대책위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되었다.)


제일 큰 걱정은,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면 공군기지도 함께 들어오는 것인데, 결국 사실로 확인되었다.

지난 3월 2일,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의 전초기지인 공군남부탐색구조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측에 의해 밝혀졌다. 총사업비 2,950억원을 들여 공군남부탐색구조대를 설치하고 부지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2018년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지난 3월 9일에는 정경두 공군총장이 제주 와서 제주 제2공항에 공군부대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기존 국방 중기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미 민군겸용 제주 신공항 건설을 합의한 바도 있다.

도로 만들면 처음에 승용차만 다니는 길로 했다가 나중엔 탱크도 다니고, 여기 공항 만들어지면 미군에서도 쓰겠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대체로 공항이 바다 쪽이고 공항청사가 산 쪽에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는 이상하게도 청사가 바다 쪽이다. 왜? 나중에 활주로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이다. 용역보고서에서도 확장성이 좋다고 쓰고 있다. 일단 민간 공항 하고 한국군 들어오고, 활주로 하나 더해서 미군 들어오고...

공군기지 없을 거라는 원희룡 도지사 말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공군기지 예정지를 보류했다가 제주 제2공

항이 완공 이후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 그때는 되돌리기 어렵다. 지금 제2공항을 막아야 한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이제 공군기지까지 오게 되면 그야말로 제주는 군사기지가 되고 만다.

제2공항을 막는 싸움이 작게는 지역 주민들의 일이지만 크게는 제주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주변에 이런 상황을 널리 알려주시기 간곡히 바란다. (정리 : 김강연 홍보팀장) 



제주 공군기지 추진 경과

- 1987년 공군, 다목적 작전기지 건설 위해 모슬포(알뜨르 비행장)일대 군사보호구역 지정
- 1989년 제주도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민군 겸용 '제주 신공항' 건설 검토
- 2000년 국방장관 "불침 함모 역할 위한 비행전대급 전력기지 필요" 제기
- 2003년 공군총장 "군 요구 충족시킬 수 있는 공군기지 건설 방안 다각적 검토 중"이라 밝힘
- 2004년 2월 제주발전연구원 "공군, 정석비행장 조기 경보기 운항기지 검토"
- 2004년 4월 공군 "알뜨르 비행장 전략기지 건설해야"
- 2006년 3월 공군 "모슬포 기지, 전술 전략 필요기지로 운영 발전돼야"
- '2006~2010 국방중기계획' : 알뜨르 비행장에 공군 전략기지 건설 계획 포함
- 당시 화순 건설 예정 해군전략기지와 합동작전 필요성 제기. 대양작전을 전개하는 해군 전함들을 보호할 전투기 배치 필요성 제기.
- 2017년 2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제주 제2공항 연계 설치 밝힘.

국방개혁과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내년도 국방예산안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429조 원에 이르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 요구안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 내년 국방예산은 43.1조 원으로 올해보다 6.9%(2조 7,83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의 증가율이다.

이런 국방예산의 대폭 증가는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바,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엄정한 심사와 함께 국민의 특별한 감시가 요구된다. 국방부의 보도자료(2017.8.28)를 보면 국방비 대폭 증액은 그 주된 사유가 국정과제 이행(병 봉급 인상과 부사관 증원을 위한 인건비 증가) 및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무기도입비 증가다.

과연 이런 사유가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의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있을까? 국방부는 부사관 증원이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같은 군인 인건비 증가가 강력한 국방개혁을 뒷받침해줄 거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럴까?

국방비는 많을수록 좋은가

국방비는 적정 수준이 있다. 국방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 팽창하게 되면 안보는 도리어 위태롭게 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국방비는 한국을 방어(상대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유지하는 비용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이런 방어전력 수준을 넘어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추구하게 되면 주변국의 경계심(군비경쟁)을 자극해 도리어 안보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

또 국방비는 다른 부문, 가령 민생, 복지, 경제, 교육 등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안보는 군사력 수단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며 더욱 중요하게는 민생 안정과 복지, 사회경제적 평등, 정치 민주화, 외교력 등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보장되는데 국방비가 불균형적으로 과도하게 되면 이런 기반이 약화되는 것이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기고문의 원문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700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7351



위 그림은 국방부 요구안 43조 7114억원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다. 정부는 국방부 요구안에서 일부 축소하여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43조 1,177억원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우리 국방비는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팽창되어 있다. <2016 국방백서>(국방부 발행)를 보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국방비는 681달러(2016년 기준)로 한국보다 국방비가 많은 일본(국민 1인당 323달러), 중국(106달러), 러시아(362달러), 독일(454달러)보다 많다.

영국(878달러), 프랑스(702달러)보다는 적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는 한국(징병제)과 달리 모병제를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국민의 부담이 이들 나라보다 꼭 낮다고만 할 수 없다.

경제력에 비추어 봤을 때도 한국의 국방비 부담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GDP 대

비 국방비 비중은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2.4%로 주변국인 일본(1.0%), 중국(1.3%), 대만(2.0%)보다 크고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영국(2.1%), 프랑스(2.0%), 독일(1.1%)보다 크며 한국과 병력이 비슷한 터키(1.2%)보다 많다.

그리고 내년 국방예산(안)은 6.9%나 증가하지만 이 늘어난 부분이 우리 군의 질적 발전(국방개혁)이나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년에 늘어나는 국방비는 그 큰 부분이 군인인건비 증가에 쓰이는데 이는 방만한 병력운영과 비대한 군조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군의 질적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

또 내년에 증가한 방위력 개선비는 거의가 미국 무기 도입에 쓰이는데 이는 대북선제공격 전략이나 대중국 견제와 같은 미국의 동북아시아지역 패권전략 수행에 필요한 무기라는 점에서 주권국 군대로서의 한국군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국방력을 구축하기 위해 국방비를 임기 중에 GDP의 2.4%에서 2.9%로 늘리겠다(7월 18일 군 지휘부와의 만남에서)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남한의 국방비는 2014년 기준으로 북한 국방비의 44배에 달해 이미 국방력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국방비의 대폭 증액이 아니라 국방비의 효율적 사용이며 북한과의 군비 경쟁이 아니라 군비통제(군축)나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 평화협정체결 등과 같은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확보다.

그리고 국방비 비중을 GDP의 2.9%로 늘리려

면 연간 3.0% 경제성장률을 가정할 때 국방비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8.1%씩 올라야 한다. 이런 높은 국방비 증가율을 5년간 지속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무리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반하는 것이다.

인건비 삭감 요인 반영하면 군인 인건비 안 올려도 돼

국방예산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비효율성(경직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인건비가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정작 병사들의 질적 발전에 필요한 교육훈련이나 장비정비, 좋은 시설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제약되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줄이지 못하는 것은 방만한 인력운영, 고급장교 정원의 과도한 팽창, 정원 외 초과운영, 지나친 특혜(고액 군인연금 등) 등 낭비 요인이 많은데도 이를 줄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예산(일반회계)은 크게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 방위력개선비(무기도입비)로 나뉜다.

병력운영비 중 군인인건비는 11조 4,169억 원인데 올해보다 10.6%가 는 것이다. 군인인건비 증가의 주된 사유에 대해 국방부는 병봉급의 ‘최저임금 30% 수준으로의 인상(병장기준 405,700원으로 88%인상)’과 부사관 3,458명 증원을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내년도 병사의 인건비는 2017년 1조 472억 원에서 1조 8,140억 원으로 7,668억 원(인상률 73.2%)이 는다. 또 부사관 인건비는 3,458명

이 증원되면서 2017년 5조 709억 원에서 5조 3,016억 원으로 4.5%(2,307억 원) 는다. 장교 인건비는 정원이 85명 줄지만 공무원봉급 인상으로 2017년 4조 2,092억 원에서 2018년 4조 3,013억 원으로 2.2%(921억 원) 는다.

그러나 병봉급 인상과 부사관 증원에 따른 인건비 인상 요인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년도 전체 군인 인건비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사 올린다 하더라도 10.4%까지 올려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군인 인건비를 줄일 요인도 있어 인상 요인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장교	부사관	병	합계
인건비 (단위:억 원)	43,013	53,016	18,140	114,169
정원	7.6만명	13.1만명	39.2만명	59.9만명

▲ 표1 2018년 국방예산상 군인 인건비

인건비 삭감 요인 1: 정원 외 초과운영 부사관 인건비

우선 인건비 삭감 요인은 정원 외 초과운영되는 부사관 인건비다. 국회 국방위의 2016년 국방예산 결산 심사 검토보고서(2017년 7월)에 따르면, 군은 중사계급(육군)에서 2,539명, 하사계급(해군)에서 47명, 상사계급(공군)에서 192명을 정원초과 운영하고 있다.

정원외 인원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2016년에만 375억 원을 장교인건비 등으로부터 이전 용하였다. 사관 2,778명의 정원 외 운영을 없

안다면 최소 1,124억 원(부서관 1인당 평균 인건비 4,047만원 기준)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인건비 삭감요인 2: 고급장교 감축

고급장교(중령이상 계급)의 방만한 인력운영은 인건비를 압박하는 최대 요인이자 군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핵심요인이다. 고급장교는 그 수가 1만 명 이상에 이르는데 ‘장포대’(장군 퇴거를 포기한 대령)나 ‘대포중’(대령 퇴거를 포기한 중령)이니 하는 말이 돌 정도로 정원이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다. 과도하게 팽창된 고급장교는 인사적체와 그에 따른 과도한 진급경쟁, 군의 고령화, 정원 외 초과운영, 고액의 군인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재정 고갈 등의 문제도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고급장교의 정원 축소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장교정원은 7만 5,980명으로 올해에 비해 불과 85명이 준다. 2017년 현재 437명인 장성 정원은 내년에 몇 명 준다고 한다.

사실상 내년 국방예산(안)을 보면 국방개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고급장교의 감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고급장교를 중심으로 최소한 장교정원을 2018년 병의 감축률(병은 2018년에 2.2만 명 준대)인 5.3%정도로 감축해야 한다. 그 경우 장교정원은 4,031명(2017년 장교정원 76,065명 × 5.3%)을 줄일 수 있다. 2018년에 장교 정원을 4,031명 줄인다면 부대운영비를 제외하고 순수 인건비만 2,426억 원(2018년 장교 1인당 평균인건

비 6,018만원 기준)을 절감할 수 있다.

인건비 삭감요인 3: 군사독재 잔재인 군인 예우 폐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시급한 것이 또한 군인 예우의 폐지다. 군인은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된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국무총리훈령 제 157호, 1980.7.29 제정)에 따라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2직급 높은 대우(봉급)를 받는다.

가령 과장직급(4급)을 맡고 있는 대령의 경우 같은 4급인 일반공무원과 달리 2급(이사관) 대우를 받는다. 그에 따라 4급 군인(평균호봉 15-17년)은 연봉이 9,357만 원으로 일반공무원(23호봉) 연봉보다 2,305만 원(2013년 기준) 더 많이 받는다. 이는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로 문민통제 원칙에도 어긋난다.

군인 예우에 따른 군인(간부) 1명당 봉급의 혜택이 최소로 잡아 평균 월 100만 원정도라고 가정하면 2017년 현재 장교가 7.1만 명(무관후보생 제외)이고 부사관이 12.4만 명(부서관 후보생 제외) 합쳐서 대략 19.5만 명이므로 특혜 폐지를 통한 인건비 절감 효과는 연간 2조 3,400억 원이 된다.

위 세 가지 삭감 요인만 합쳐도 절감되는 인건비는 2조 6,950억 원으로 이를 반영할 경우 내년도 군인인건비는 8조 7,219억 원이면 된다. 즉, 내년도 군인인건비를 15.5%나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국방개혁과 거꾸로 가는 내년도 국방예산

국방부는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내년에 부사관 3,458명을 증원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2,778명이나 정원 외 초과운영하고 있는 부사관은 그대로 두면서 부사관 증원이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부사관 증원이 ‘강력한 국방개혁을 뒷받침’(국방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는 고급장교 인력의 감축이다. 고급장교 인력이 감축되지 않으면 비대한 군조직의 간소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성 정원은 국방개혁이 시작된 2006년부터 2016년 사이 부대 해체 및 감편으로 23명 줄었는데 그 사이 부대 창설 및 증편으로 새로 18명의 장성 정원이 늘어 11년 사이에 불과 5명(2006년 442명에서 2016년 437명) 줄었을 뿐이다. 고급장교의 대폭 감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비대한 군조직의 슬림화는 불가능하다는 하나의 방증이다.

국방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의하면, 장교 정원은 2022년까지 7만 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국방부의 장교정원 감축 대상에서 무관후보생의 정원은 제외된 것이므로 장교정원(2017년 기준 무관후보생 제외한 장교정원은 71,555명) 감축은 국방부의

계획대로 하면 기껏해야 1,000여명 주는 것에 불과하다. 즉, 국방부의 장교감축계획은 줄이는 시늉만 하는 것이어서 국방개혁이라는 차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2017년	2018년	변동
장교	76,065명	75,980명	85명 감축
부사관	126,807명	13.1만명(추정)	3,458명 증원
병	415,252명	39.2만명(추정)	2.2만 명 감축
합계	618,124명	59.9만명(추정)	1.8만 명 감축

▲ 표2 군인 신분별 예산편성 정원 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7만 명으로의 감축 목표연도를 2022년으로 최대한 늘려잡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장교정원을 늘려왔으며 장교정원이 소폭이나마 줄기 시작한 것은 겨우 2016년부터다. 무관후보생 정원을 포함해 장교정원을 70,000명으로 줄여야 다소나마 국방개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관후보생을 포함한 장교정원 7만 명도 과도한 수준이다.

한반도의 좁은 지형으로 보나 현대 무기체계의 작전성능으로 보나 전수방어를 위해 적정한 우리 군의 병력규모는 30만 명 안팎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 이 규모는 김영삼 정부 때 국방개혁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내부 안(35만 명수준)으로 채택된 바도 있다. 전체 병력규모를 30만~35만 명으로 줄일 경우 병과 간부의 비율(간부비율 50%)을 반반으로 한다면 장교 정원은 5만~6만 명(부사관 10만~15

만이면 걱정하다. ‘표범 같이 재빠른 군대조직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하면서 기껏해야 장교정원을 1,000명 정도 줄이는 것에 머물고, 그것조차도 앞으로 5년 뒤에나 실행하겠다고 한다면 비대한 군조직의 간소화도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도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병 봉급 인상, ‘상후하박’ 봉급체계의 조정 및 병 대폭 감축과 병행

정부의 병(사) 봉급 인상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국방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병 봉급이 낮은 것은 아니다. 병 봉급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정도로 우리 군의 봉급체계가 극단적인 ‘상후하박(윗사람은 후하게, 아랫사람은 박하게 대우함)’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간부(특히 고급 장교)의 높은 인건비를 줄여서 이를 재원으로 병의 봉급을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병 봉급 인상을 이유로 국방비를 대폭 올리게 되면 이는 낮은 병 봉급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둘째로 지금처럼 병사의 규모를 30만~4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봉급만 인상하게 되면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압박으로 이어져 정예군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병(병장 기준)의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올림에 따라 내년도 병의 인건비가 2.2만 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려 7,668억 원(인상률 73.2%)이 인상된다. 2018년 병사 1

인당 평균 월급은 38만 6천 원(최저임금 157만 3,770원의 24.5%)이다.

최저임금이 2022년까지 한 푼도 안 오른다고 가정하더라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로 병봉급(786,188원)을 인상한다면 그때 병 전체의 인건비 총액은 연간 2조 9,530억 원이 된다. 병의 정원이 2018년 39.2만 명에서 2022년 31.3만 명으로 7.9만명이 주는데도 2017년 병 인건비 1조 472억 원 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2019~2022년 사이 30% 정도 인상될 것으로 가정하면 2022년 병의 인건비는 4조 원(3조 8천억 원) 가까이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예군화를 위해서 국방부는 부사관을 2022년까지 지금보다 2만 3천명 가량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것만 따져도 인건비 증액소요는 연간 1조 1,500억 원(부사관 1인당 연봉 5,000만 원 가정)이다. 병봉급 인상과 부사관 증원까지 되면 2022년 인건비는 국방비의 50%를 넘길 수 있다. 과연 이런 인건비 증가 요인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설사 국방비를 인상해 병 봉급을 계획대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군의 질적 발전을 담보해주지 않는다.

2018년 병의 정원은 39.2만 명(군인 정원은 59.9만 명)으로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의 정원을 31.3만 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표범 같이 재빠른 군대’의 상에는 맞지 않는다.

국방부가 병력 감축을 하더라도 병의 경우 30만 명(육군이 거의 80% 차지), 전체 현역병력의 경우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려는 주된 이유는 군기득권과 무관하지 않지만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이 북한 점령을 전쟁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점령은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에도 위반되고 또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전쟁목표를 포기한다면 전체 우리 군 병력 규모를 30만명 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병의 규모도 20만 명 이하로 낮출 수 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 촉발할 수 있는 3축 체계

내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또 하나의 명분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다. 내년도 방위력개선헌비는 13조 4,825억 원으로 올해보다 10.5%가 늘어난다. 이 중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축체계 구축 예산은 4조 3,359억 원으로 올해보다 5,240억 원(증가율은 13.7%)이 늘어난다.

그렇지만 3축체계의 조기 구축을 이유로 한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은 타당성이 없다. 그것은 이른바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MD, 대량응징보복체계)’라는 것이 북한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보복능력의 발전을 유발해 남한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촉발시킬 가능성만 키우기 때문이다.

3축 체계는 미국의 대북한 핵억지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이를 작전개념화한 4D작전 개념을 이행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 핵미사일을 사용위협단계와 사용임박단계(미사일연료주입이나 미사일발사 명령 포착 등) 그리고 사용단계로 나누고 사용임박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타격하는 선제공격전략에 입각해 있다.

‘킬체인’이란 사용임박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및 이동로, 지휘통제체계, 관련 고정시설 등 북핵·미사일작전체계를 타격하”는 공격체계(《2016 국방백서》, 58쪽)를 말한다. ‘한국형 MD’는 사용단계에 대응하는 작전형태로 킬체인에도 불구하고 생존해 날아오는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다. ‘대량응징보복체계’도 사용단계에서 MD로 요격되지 않아 북한 핵미사일에 의해 피습되면 북한 지휘부를 괴멸시킨다는 작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조요청한 현무-2C의 탄두중량 확대(현재 500kg에서 1톤으로)는 지하에 은신한 북한 지도부를 타격하기 위한 용도다. 한국형 MD나 대량응징보복체계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선제공격전략을 전제한 위에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로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작전이 아닌 선제공격작전의 범주에 포함된다. 사용임박단계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보이면 공격한다는 선제공격전략 그리고 이의 실행을 위한 3축체계는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 또 전쟁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를 위반하는 불법이다. 무엇보다도 이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촉발하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전략이고 작전이다. 또 이는 한반도에서 핵군비경쟁을 부추기는 등 군사적 긴장을 첨예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킬체인이든 한국형 MD든 그것은 작전적으로 성공하기도 어렵다. 북한 핵미사일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고 더구나 이동식발사대는 인공위성으로도 파악이 안된다는 점 등 때문에 대북선제공격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또 발사되는 북한미사일은 한반도의 짧은 중심(북한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착하는 시간은 2~5분)이나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어 요격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3축 체계는 불법적이고 작전적으로 효용성이 없고 한쪽의 군비증강이 다른 쪽의 군비증강을 초래해 안보가 더욱 위태롭게 되는 악순환(안보 딜레마)을 초래한다.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군사적 방식으로 풀어서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미국 또는 남한을 공격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에서 자신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또 핵선제공격능력까지 보유한 미국 또는 한미연합군의 대북 공격을 억지하는 수단으로서 추구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군사적 차원에서 한국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은 선제공격전략이 아닌 방어전략으

로 바뀌어야 하고 전력 또한 방어에 충분한 정도의 재래식 군비를 갖추면 되는 것이다. 현재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으며 그것으로써 남한은 충분한 대북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반도 핵전쟁 촉발할 수 있는 3축 체계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기원이나 성격으로 볼 때도 그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이지 군사적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북한 핵미사일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핵공격 위협)에 대응하는 성격의 것이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폐기되면 해결될 수 있다.

북한도 2016년 7월 6일 정부 대변인 성명에서 핵무기 보유가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북한의 선비핵화를 주장하면서 평화협정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를 회피하거나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펴면서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경제적 제재로 일관하는 까닭은 ‘중국 견제’라고 하는 동북아시아 전략 속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반도를 핵전쟁위기로 몰아가고 있고 또 남북 간 평화통일을 저해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대중국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전략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3축체계 구축은 정부의 평화통일전략에 배치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것을 걸고 정부는 전쟁을 막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다. 한반도에서 자칫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는 3축 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수조원씩을 쏟아붓는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전쟁촉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이는 문 대통령의 다짐과도 정면으로 역행한다.

문 대통령은 신베를린 선언에서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갖고 있지 않고, 북한 정권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3대원칙을 천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군사적 옵션이 아닌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3축 체계는 선제공격을 통한 북한 비핵화와 북한 붕괴를 작전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3대원칙과 평화통일전략에 위배된다.

3축 체계 구축은 관련 무기를 전부 미국에서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17년 미국무기 도입비는 1조 9,762억 원(예산)에 달하는데 그 전부가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무기들이다.


가령 F-35(총사업비 7조 7,350억 원), 대형 기동헬기 2차(1,516억 원),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8,828억 원), 패트리엇요격미사일(2,402억 원), 패트리엇 성능개량(16조 6,113억 원), 함대공유도탄(1조 3,201억 원) 다목적 정밀유도확산탄(2,380억 원) 등이 그

것이다. 결국 3축 체계는 한국민의 안전과 생명,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희생시키고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국회의 엄정한 심사를 바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국방개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에도 역행하며 군의 기득권에 안주해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의 부담만 늘리는, 한마디로 민주개혁정부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반개혁적 국방예산이다.

국회의 엄정한 국방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법적인 부서관 및 장성과 대령·중령의 정원 외 초과운영을 바로잡고 포화 상태인 고급장교 정원을 대폭 줄이고 군사독재잔재인 군인 에우를 폐지함으로써 인건비도 줄이고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작지만 강한 군대, 표범같이 날쌔 군대를 위한 국방개혁 2.0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우기를 기대해 본다.

또 국회의 엄정한 국방예산 심사를 통해 3축 체계 구축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앞당기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고 국민의 부담도 더는 첫 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



광주평통사 회원 야유회

9/10(일) 오후 4시 광주평통사 회원 야유회를 진행했습니다. 5월 총회 이후 여러 회원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정규영 대표, 정동석 사무국장이 소성리 사드배치 철회 투쟁으로 바쁜 조건임을 감안해서 회원들 스스로가 모든 행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소성리 사드 배치 과정 등으로 행사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사드배치 철회 투쟁으로 바빴던 서로를 위로, 격려하고, 편하게 음식을 나누고 노래도 부르며 몸을 부대끼는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 남은 하반기 더욱 힘내서 사드 배치 철회 투쟁과 자주 평화통일에 나설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천주교 광주교구, 고영대 대표 초청 특강 열어

9월 16일(토) 광주 염주동성당에서, 천주교 광주교구 사목국 주최, 천주교 광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주관으로 '사드배치의 진실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평통사 고영대 공동대표 초청 강연을 열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하여 광주 각 성당과 멀리 곡성, 강진 성당의 사제와 신자 등 1,000여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사드란 무엇인지, 사드배치의 문제점, 미국의 동북아 및 전 세계 군사동맹 구축 의도, 북한 핵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참가자의 상당수가 여성, 다수가 중년 이상인 점을 봤을 때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 문제 대해 다소 어려울 수 있었지만, 대다수가 강의에 집중하였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고대표에게 차량 문을 열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좋았습니다"라고 박수와 함께 인사를 전하는 등 전체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유익하고 의미있는 강의였습니다. 참가한 회원들도 "두 번째 들어서 사드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아주 현재 상황을 잘 정리해 주셨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니, 걱정 된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한편, 참석자 중 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가 개최한 동방포럼 연설문에서 "일본을 지나치게 자극한다"며 안중근 의사의 사례를 제외시킨 점을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앞으로 강의에서는 이 내용은 빼 달라는 무례한 요구가 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올바른 길을 갈수록 쓴소리로 할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날 강의는 광주가톨릭평화방송에서 녹음하여, 9월 18일 방송되었습니다.

| 사무국장 정동석 |

군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군사연습 중단 촉구 전북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지난 8월 21일(월) UFG 한미군사연습 중단 촉구 전북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사드배치반대전북대책위 등 42개 단체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도청 현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북한의 ICBM 발사로 한미당국의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선제공격과 체제 붕괴까지 상정한 작전계획 5015에 따른 UFG 연습이 한반도 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북선제공격연습 UFG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북핵미사일 실험과 한미군사연습의 동시 중단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비상행동 참가

지난 9월 6~7일 진행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비상행동에 김판태, 박원규, 김태순 회원이 힘차게 참가했습니다. 800여명의 주민과 지킴이들이 사드 반입 저지를 위해 18시간이나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싸웠습니다.

특히 김판태 대표는 평통사 회원들과 함께 자동차에 쇠파이프를 자신의 몸을 연결하여 최후까지 저항함으로써 사드 반입을 상당시간 저지시키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다. 비록 사드 반입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후 투쟁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규탄 군산 시내 피켓팅 진행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사드 추가 배치를 규탄하는 일인시위와 피켓팅을 군산 시내 여러 곳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아침 7:30~9:00, 오후 5:30~7:00에 극동사거리, 기업은행사거리, 남북로사거리, 롯데마트사거리, 현대코아사거리, 군산대 앞 등에서 진행된 이번 실천활동에는 박운옥, 김연태, 서장호, 문규옥, 권현숙, 박영희, 이재호, 조규춘, 김판태 회원 등 여러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 대표 김판태 |

김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피켓팅 진행

지난 9월 8일 아침 7:30~8:30 동안 나현군, 황해정, 박찬희 회원 등 김제 회원들은 사자탑 사거리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출근하는 시민들은 눈길로 관심으로 보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평통사 김제회원모임 가져

지난 8월 17일 손은하, 황해정, 나현군, 박찬희, 이용만, 오인근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평통사 김제회원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원모임에서는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기로 하고, 하반기에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하는 강연회 또는 토론회 개최를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 총무 황해정 |

대전



대전정평위 '사드 배치 거짓과 진실' 저자 고영대 대표 초청 강연

9월 18일,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하는 사드 강연회가 둔산동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사드 배치 거짓과 진실> 저자인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가 강사로 나선 강연에는 130여명의 천주교 신자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강연과 질의응답에 진지한 자세로 참여한 참가자들은 강연이 끝난 뒤 강사에게 사드에 대해 명료하게 알게되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논산 평화영화 상영

8월 28일, 논산에서 평통사 논산 회원모임과 논산민주청년회가 공동 주최하는 '파란나비효과' 평화영화 상영이 있었습니다. 유영재 상임운영위원이 사드의 문제점과 투쟁 현황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뒤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진지하게 영상을 보았고, 상영 후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운영위원 유영재 |

순천



소성리 어머님들의 힐링 캠프, 새로운 투쟁의 결의를 다지러 순천에 오셨습니다.

9/17(일)~18일(월) 소성리 어머님들의 힐링 캠프, 새로운 투쟁의 결의를 다지러 전남 순천, 구례에 오셨습니다.

갑자기 연락받고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마중과 배웅을 했지만 정성스레 모시려고 했습니다. 특히 오목목 순천 대표님은 지난 7일 소성리 사드 추가 배치 저지 투쟁과 정에서 갈비뼈 부상을 입었는데, 아직 몸이 많이 편찮으신 상태에서도 이를 연속 어머니들을 찾아보셨습니다.

사드 저지 투쟁에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을 어머니들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들과 동행하며 챙겨주신 김성혜 교무님과 윤명은 실장, 원불교 광주교구, 갓 수확한 싱싱한 배 14상자를 급하게 마련해 주신 민중연합당 나주시당 김성보 농민위원장과 나주시 여성농민회 회원들, 구례 아이쿱 협동조합 민경진 이사장님 그리고 이모저모 신경써 준 광주, 순천, 전남지역 평통사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사무국장 김용재 |

마창진

마산창원진해 평통사, 소모임으로 전환

2015년 6월에 창립한 마창진평통사가 2년 넘게 활동을 해 왔으나 일상회원 활동이 거의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평통사 조직정비와 운영에 관한 특별지침에 근거하여, 지난 9월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현실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마창진평통사를 소모임으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 회원을 공부와 실천을 중심으로 세우고, 지역조직을 재건할 수 있도록 소모임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꾸준히 소성리 지킴이에 나서는 회원들

일주일, 또는 사나흘씩, 평통사 전 조직이 당번제로 운영하는 소성리 지킴이 활동에 부산 회원들이 꾸준히 참가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추가 반입되던 9월 6일과 7일에는 직장 일을 제쳐두고 참가한 운영위원과 회원들도 9명이나 됩니다. 인간 파이프 투쟁으로 결사 저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두 시간, 네 시간 썩이나 들길과 산길을 걸어 마을로 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이 끈끈한 연대의 힘은 사드 배치 문제가 단지 소성리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가늠하는 문제라는 튼튼한 인식에 뿌리를 둔 것이기에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고영대 대표 강연 개최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아세미(아름다운세상을여는미사)에서 고영대 공동대표가 '사드 배치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9월 11일(월), 부산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강연에는 부산교구의 신부님들을 포함하여 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9월 7일 새벽 소성리에서 강행된 사드 추가배치 상황을 영상과 함께 소개했습니다. 고대표는 사드를 막기



위해 평통사 회원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했고,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대표는 그 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와주셨다면 사드 진입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소회도 표현했습니다.

강의에서 고대표는 사드의 군사적 무용성, 불법성과 사드 배치의 본질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의 절박성을 알려냈습니다. 특히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나서고 있는 천주교에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평화협정은 한미동맹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아세미 강연은 9월 25일(월) 울산 야음성당에서도 진행됩니다.



2017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연습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

8월 21일 시작되어 31일까지 진행된 연습에 맞서 노동당, 정의당, 변혁당 등 지역의 진보적인 정당과 부산 지하철노조, 부산 NCC와 공동으로 백운포 주한미해군사령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성주 소성리 지킴이 활동

평통사 일꾼들과 회원들은 성주 소성리 사드배치를 막기 위한 일상적인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평통사도 시간이 되는 회원들이 함께 지킴이 활동을 했습니다. 8월 초에는 휴가를 반납하고 지킴이 활동을 한 회원도 있습니다. (사진 : 8월 초, 여름휴가를 소성리 지킴이 활동으로 보낸 회원들과 소성리 진밭고 아래서)

문재인 정권이 사드 임시 배치를 강행한 9월 7일에는 밤을 세워가며 사드를 막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청와대 앞 1인시위 참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일에 진행되는 청와대 앞 일인시위에 서울 평통사 회원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강행하며 미국에 굴복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쓴소리를 하는 1인시위는 계속됩니다. (사진 박덕진 회원, 이수연 회원)

1인시위 신청 (02-711-7292)

| 대표 황윤미 |

서울
남부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 일인시위

지난 8월 24일(목),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 서울 남부 평통사 전성표 대표와 형복순 사무국장, 오혜숙 회원이 각각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일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 사무국장 형복순 |

익산



익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제막식

2017년 8월 15일 오후 7시 익산역 광장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제막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익산 시민사회 80개 단체와 시민 1,0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만행을 규탄하고 다시는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역사적 현장인 익산역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민 1만 여명 참여하였고 평화나비 부호 90호 발급, 250개 모임(가족, 단체, 기업)이 참여 하였습니다.

| 사무국장 김대송 |

인천



소성리 주민들을 위한 사랑~

연일 이어지는 사드배치 압박으로 시달리는 마을 주민분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 치료를 해주는 청년한의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성태 회원이 한의약품을 기증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을 위해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청년 한의사와 무엇보다 80세가 넘으신 노인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사드를 힘겹게 막아내는 모습에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박힌 사드를 빼는 그날까지, 회원 여러분~함께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철회' 목소리를 들어라

전철과 버스를 타고, 걸어서 도착한 청와대 앞 분수대. 이미 그곳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마에서부터 등줄기를 주르륵 타고 흘러내리는 땀. 이 땀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천 평통사 회원들은 9월에도 '사드철회'의 피켓과 깃발을 들었습니다.

[신입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해민 님, 이현재 님

| 사무국장 유정섭 |

전주



사드추가배치 반대 투쟁, 전선에 서서!

역사적인 1박 2일 사드추가배치 저지투쟁을 기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전주 회원 단체카톡방의 메시지를 시간대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국 산(오전5:15) : 새벽 4시경부터 경찰들의 야만적 연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국 산(오전6:24) : 6시부터 마을회관에 모여 집회를 하고 있는데 도로에 바리케이트용으로 주차해놓은 차량들을 하나씩 레카차로 구인해가고 있으니 판단이 헛갈리네요. 씁쓸합니다.

국 산(오전6:35) : 레카차 저지를 위한 투쟁이 시작되다. 우리의 승리가 멀지 않을듯^^

하연호(오전6:37) : 수고가 많아요 반드시 막아낼 거예요 힘내세요

국 산(오전8:20) : 8시15분 사드 발사대 4기가 우리 앞을 지나가는걸 멍하니 지켜 보아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투지부족이지요.

하연호(오전8:42) : 수고 했어요 다친데는 없는지...

심 훈(오전8:58) : 고맙습니다~

이중희(오전9:01) :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재호(오전9:27) : 애쓰셨습니다!!!

방용승(오전9:41) : 고생하셨습니다

국주영은(오전11:08) : 고생하셨습니다.

김재병(오전11:20) : 고생 많으셨어요

최인규(오전12:42) : 고생하셨습니다

서은숙(오후11:02) : 많이 허탈하고 힘드실것 같습니다. 모두 애쓰셨습니다.

| 교육부장 이재호 |

[알림] 인천평화발자국(10/22 오전 10시)

- 주제 : 일제 강점기 징용상과 소녀상이 이야기하는 전쟁과 평화
- 코스 : 가재울역-화랑농장 토굴-부평공원

회비와 후원금(8월)

중앙

[대표 및 임원] 서창호 이천우 이일영 임종철 강경주 장경옥 권정호 배종열
[후원회원] 권영선 김광진 김귀옥 김동원 김명래 김용순 김점수 김형배 류희승
서경숙 유광수 유광수 유영섭 옥갑성 이구영 이성호 이옥숙 이창우 장성두
정경훈 조은숙 황호영
[전조금 및 후원금] 문규현 임종철 전주평통사 익산평통사 부산평통사
대구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 인천평통사 부산평통사 강남교회 강수혜 김상균
김영남 김예숙 들꽃향린교회 비전동성당 새길교회 섬돌향린교회 성용안 손정빈
양동일 이지영 이현숙 전나미 전주남문교회 조민희 조해정 착한콜위드고
평통사후원회 하늘평화공동체 향린교회 조문자

광주평통사/ 광양평통사/ 순천평통사/ 무안 해남 목포 모임/ 전남 기타

강경식 강덕구 강동영 강복현 강삼연 강성희 강성희 강 신 강양호 강영태
강은미 강일규 강정원 강경자 강지연 강준원 강태양 고경이 고영인 고영철
고익중 고정석 고정현 고정석 공훈표 박 건 객길성 객 준 권태경 기숙희
기원주 김경수 김경수 김강호 김경희 김관일 김광란 김광수 김광식 김귀진
김금식 김갑나 김기대 김기만 김기주 김기현 김나리 김대현 김덕용 김덕우
김덕현 김동구 김동수 김동일 김동일 김동호 김두희 김미경 김미숙 김미진
김미희 김민경 김민호 김범중 김병국 김병기 김병모 김병국 김병태
김 불 김부철 김상철 김상덕 김석연 김선미 김선발 김선태 김성룡 김성보
김성민 김세연 김세연 김수경 김슬기 김양수 김영관 김영민 김영석
김영위 김영자 김영제 김영호 김영호 김옥길 김요섭 김용근 김용국 김용선
김용재 김용주 김용철 김용태 김용호 김우성 김유빈 김유국 김은근 김은숙
김은정 김은지 김은희 김을남 김이준 김민철 김재우 김재홍 김 정
김정삼 김성기 김성옥 김성남 김준수 김준안 김준택 김준희 김중석
김지호 김지희 김진근 김진현 김창환 김창현 김창필 김태욱 김태완 김희성
김한일 김한아 김현우 김현주 김현진 김현진 김혜원 김혜숙 김혜원
김호선 김호성 김호성 김호성 김호성 김호성 김호성 김호성 김호성
나성근 나옥석 노가은 노병남 노일경 노진영 노형태 류경수 류보은 류승환
마상진 명경관 모영현 문미경 문성훈 문애준 문영란 문영숙 문영대 문영훈
문우진 문재경 문재식 문지일 문희국 문홍석 문희정 문경진 박경옥 박경원
박광운 박광희 박관철 박기웅 박기찬 박동하 박미옥 박민근 박병섭 박병을
박상식 박상옥 박상은 박상일 박상준 박상진 박상희 박서근 박석연 박석우
박서환 박지영 박지현 박진태 박진태 박진태 박진태 박진태 박진태
박영자 박영주 박오열 박 웅 박용두 박유수 박은정 박재영 박정연 박정화
박종영 박종삼 박종섭 박종일 박종주 박종찬 박종재 박종태 박종택 박주식
박종철 박지영 박찬형 박창균 박충섭 박치우 박태현 박필수 박태기 박태순
박태현 박형주 박훈환 박명자 박진식 배경섭 배무궁 배민규 배성환 배영일
배진하 배진진 배규원 배동규 배진민 배종수 배지은 변철진 봉문수 서경호
서광식 서민호 서부원 서영원 서 정 서정대 서준환 서창호 서현미 서현희
성창우 손낙수 손무지 손민선 손민원 손승상 송규원 송담숙 송병준 송봉섭
순순교 송원선 송재현 송호찬 송호철 신경주 신근홍 신덕희 신미진 신영훈
신원식 신우진 신정환 신현수 신하균 신현주 심상옥 심창진 심창호 안광미
안 민 안병일 안보현 안성은 안소희 안영숙 안재현 안종기 양 동 양동욱
양민철 양석호 양순규 양승진 양이화 양창홍 양하승 양한열 양현주 양혜주
양성명 양근선 양민주 양복록 양재호 양성희 양승경 양승주 양승택 양옥목
양호국 양정구 양철호 양태현 양태현 오하근 오해근 오영옥 오 훈 오수환
위환복 유문식 유병우 유영순 유옥상 유영일 유원상 유 종 유충현 유지용
유현승 유현영 유규현 유동주 윤미라 윤봉란 윤성근 윤예중 윤종범
윤준서 윤원식 윤형현 이거라 이광수 이경진 이광수 이광철 이교창 이구인
이귀업 이귀업 이규학 이규열 이규한 이규호 이기문 이기형 이기호 이기호
이기훈 이대행 이도선 이동현 이매실 이명숙 이무진 이민재 이병석 이병재
이보라미 이복남 이상규 이상호 이석주 이상계 이상대 이상영 이소형
이수경 이승현 이승호 이애란 이영기 이영희 이원열 이요섭 이윤대 이윤빈
이윤인 이윤주 이우경 이원현 이원범 이의숙 이인수 이정수 이재광 이재창
이정옥 이정희 이정훈 이정훈 이정훈 이정훈 이정훈 이정훈 이정훈
이철우 이종재 이태석 이태욱 이현기 이현림 이현수 이현영 이현민 이현신
이희수 이희정 임광석 임대영 임동용 임미이 임순남 임원택 임재철 임현식
장경도 장관철 장덕자 장문규 장미호 장석웅 장세근 장세현 장순영 장재관
장연승 장우광 장유라 장유진 장주식 장형규 전경일 전승용 전창훈 정가섭
정경철 정경호 정경화 정영규 정길주 정덕윤 정동석 정복록 정문희 정병일
정성철 정성호 정성기 정성국 정성민 정성주 정성주 정성주 정성주 정성주
정순일 정순일 정순창 정양호 정영동 정영록 정영원 정영이 정옥재 정유리
정윤자 정은정 정인재 정일대 정재식 정재호 정종득 정종범 정종석 정진근
정진자 정진철 정찬록 정현정 정현성 정현숙 정희태 조기현 조대현
조동근 조동현 조영규 조영식 조영민 조용근 조용석 조정하 조종철 조창익
조호제 조희열 주경진 주진성 진덕미 진재영 차정연 채미라 채일순 천우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최경미 최경환 최기종 최기호 최미나 최 성 최성구 최선영 최양우 최 열
최영도 최영수 최용호 최은덕 최은애 최재희 최종률 최진연 최치현
최형섭 최 훈 최희진 표경식 표영민 한강희 한명철 한상인 한창덕 한혜영
하남필 홍관희 홍광표 홍기원 홍상대 홍서주 홍요한 홍용식 황미경 황수영
목포 변열교회 목포산도교회 목포중앙교회 광주근사당교회 용당장교회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군산평통사

강경덕 강인수 강임준 강정식 강혜경 고금자 고동식 고차원 권태균 김경수
김국태 김기수 김도철 김동준 김동찬 김미주 김미진 김봉옥 김상태 김성근
김성수 김성태 김성훈 김수진 김연태 김오수 김윤철 김준근 김진현 김태순
김태철 김판태 김향덕 김향순 김형균 나신환 남대진 노명자 노승민 라귀인
마더스 문규옥 문성주 문정숙 문지영 박금자 박영희 박은옥 박원규 박재애
박종대 박종수 박현진 박형선 배영원 서경희 서동원 서일순 서정호 선진숙
손영훈 송상규 신동수 신수철 양수철 양은희 임미숙 여성구 오국진 오금수
오선환 오병철 옥경남 위양자 유미숙 유승기 유연택 유하영 이계택 이덕환
이명로 이복희 이봉호 이서현 이선희 이종인 이지윤 이태영 이현주 이희정
임정원 임초희 임홍연 장미애 전영훈 전해숙 전희남 정 란 정 민 정옥진
정창원 조경수 조규준 조남년 조성옥 조용주 조인호 조재용 조판철 채성석
채영호 최광문 최대준 최소영 최수진 최영환 최은주 최은진 최이화 최재서
최진영 한성자 황 진 황현정 조영환 정민영 박옥현 장재순 양기만 김 진
변순영 권현숙 최남규 서지원 김경호 신유미 이재호 신희섭 현기석 이진우

대구평통사

강기룡 강현옥 강형구 고경수 고희림 객미경 구연우 구자숙 권재호 권주연
김기연 김기욱 김대식 김도는 김동수 김동영 김명환 김미란(2개월) 김병길
김상임 김선희 김성순 김성태 김성혜 김수경 김영숙 김종희 김진영 김찬수
김태경 김현란 김현택 김현택 김호남 나미숙 노영국 노의하 문광덕 문현준
문혜경 박문수(2개월) 박민호 박배일 박성민 박소영 박순단 박순중 박재범
박진강 박진선 박형선 배소라 배영자 배인연 (2개월) 변혜경 서보성 서수녀
손만철 손연옥 송선희 송철환 신동찬 신영도 안재철 안주연 양은숙 오신택
오창섭 오혜란 우봉진 유지수 유영대 유창열 윤화임 이기분 이대희 이미경
이범주 이병수 이상규 이상술 이석문 이석주 이영호 이은수 이정연 이종준
이준원 이종식 이창우 이태광 임정근 임진우 임현정 장성대 장재호
전은희 전창훈 전호관 전희영 정명숙 정민규 정수경 정수태 정용섭 정종덕
조규천 조유연 조종훈 조현정 주경봉 최봉태 최진영 최춘식 최현정 하재철
한상옥 함수연 하정호 허재남 홍관익(황지영) 홍상옥(2개월)

대전충청평통사

강대훈 강선호 강홍순 고광성 김용수 김기수 김기현 김덕애 김도석 김동희
김미경 김미연 김성중 김선미 김성자 김영숙 김영순 김오경 김정수 김경현
(2개월) 김정호 김주호 김지수 김진안 김충영 김충철 김홍수 나백주 노정래
류기형 모성진 문성호 문양로 민현호 박경란(2개월)박은희 박용용 박인찬
박종찬 박태권 박필규(2개월) 박희민 백승혁 서남철 서영희 서유나 손정희
손종표 송관옥 송광성 송신근 송원준 신성원 신주희 신현영 신현영 신현정
신규상 심상우 심주호 오광영(2개월) 오수철 오승아 오완근 오윤복 오찬실
원용호 유성호 유영민 유영재 유요열 유정환 유정원 유종철 유진범 윤병민
윤상렬 윤태영 윤혜경 윤효권 이강용 이근희 이광현 이기훈(2개월) 이문행
이변영 이병구 이세중 이요한 이우근 이은영 이재욱 이종영 이진 이진구
이창복 이철호 이춘자(2개월) 이항숙 이현숙 이훈국 임준근 장도정 장영진
장인백 전암배 전은경 전해연 정명진 정성현 정창석 정태순 정희대 조동준
조만영 조병현 조봉현 조부활 조성미 조영주 조용국 조재현 조주형 최영규(2
개월) 최영민 주교하 한상일 한용세 함필주 홍순자 홍지은

보령평통사

고미숙 권기석 권순현 권진복 김영석 김은수 김종섭 김진수 백용기 상형규
서순희 송미영 신현영 안학수 오무광 오장식 이덕표 이용우 이재문 이정학
이종철 이학철 추동신

부천평통사

강용환 구광숙 구자춘 구현모 김경남 김덕근 김덕희 김동오 김미영 김성근
김성용 김성호 김성훈 김숙희 김영준 김용관 김용상 김원식 김인영 김정은
김정훈 김주영 김지숙 김현경 김현주 노은하 노형욱 문은정 민경진 박성진
박숙경 박영민 박인호 배영미 변승기 사이하 서혜숙 석의정 성명은 손무수
손종옥 송기부 송봉훈 신용철 신정길 김영선 양남영 오은남 유승우 유원희
윤용한 이규원 이병호 이보영 이숙주 이영아 이영재 이영희 이영규 이종주
이현구 이현주 이혜련 이홍남 임숙영 임현순 장인국 장재현 전유미 정근수

정선화 정승옥 정승현 정용진 정윤희 정인조 정현희 정희복 조기대 조민우
조소희 주영숙 주영일 주옥현 주정숙 지상철 지은희 지태봉 천소향 최명미
최정규 최희준 허민영 허호인 현지환 홍봉현 황영신 황영희

부산평통사

강문수 강자아 강종권 계숙경 광곡덕 광병철 광상진 권영수 권창훈 권철호
김강임 김건우 김광수 김광식 김규연 김기래 김나영 김남기 김다희 김서윤
김수환 김영수 김영자 김요아킴 김용판 김욱 김유순 김유중 김은성 김은자
김재연 김점선 김정혜 김지은 김창호 김하원 김해영 김해경 김현봉 김현주
김현호 김형열 김호기 김홍술 김홍규 남송우 남원철 남정희 남태호 도라지
문배수 문은경 박광선 박교원 박동일 박두숙 박석분 박성웅 박성호 박수경
박수분 박수진 박승자 박영 박인순 박정에 박정하 박종대 박준순 박진태 박철
박희동 방영식 배인석 백미연 서기범 서은숙 서병수 서혜진 설정희 설창훈
성은하 손그레이스 손기중 손재현 손남숙 신승태 신지현 신자범 심나영 심창신
안재익 안종덕 안진숙 안하원 양동석 양윤정 양일동 양진철 양희나 엄귀현
오재정 우수경 원무현 유성일 유성영 윤혜정 이경호 이계섭 이광표 이덕순
이미희 이배규 이상남 이상철 이상진 이말신 이우영 이영욱 이은희
이정선 이정숙 이종영 이종숙 이진호 이태산 이화진 이학진 임상민 임상우
진기호 전나미 전소홍 장호봉 정개영 정대화 정영선 정봉실 정쌍은 정외숙
정원호 정유희 정익태 정익현 정재양 정정선 정혜경 조경주 조병준 조보교파
전병진 장영호 차성호 채규화 최귀화 최무덕 최병학 최영혁 최홍조 최은주
최충태 최영목 하복철 하지림 하소식 한기양 한석문 홍해진 황구하 황선희
황동진 황영주 황철환 (후원) 가나안교회 김순호

서울평통사/서울남부 평통사

강대준 강수혜 강애란(2개월) 강양원 강영옥 강윤미 고정심 고광호 고연주
공동길 광원희 구수영 구자숙 권남근(2개월) 권소길(2개월) 권순형 권영무
권장희(2개월) 권제세 권혁문 권혜인(2개월) 김각영 김경자 김경자 김경호
김경훈 김관철 김균열 김기수 김기수 김동훈 김두리 김두산 김명선 김명일
김미경 김미령 김미영 김민재 김보경 김복녀 김상패 김새론 김석균 김석민
김선희 김성연 김숙자 김만순 김연옥 김영균 김영리 김영모 김영재 김영진
김영진 김운성 김원봉 김유석 김유하 김은미 김은미 김은아 김일수 김재훈
김정미 김경자 김정현 김중일 김중희 김중환 김지수 김진환 김충래 김태준
김한규 김한성 김항자 김현진 김화순 김후중(2개월) 김희국 김희영 김희현
나현대 나혜연 남택우 노은아 도민방주 류미아 류시자 류은숙 림구호 문병모
문수정 문민근 문정화 문희경(2개월) 민윤혜경 박경혜 박덕진 박명숙 박병관
박봉희 박상호 박성돈 박성호 박연미 박영희(2개월) 박은봉 박인옥 박종기
박종양 박종열 박종민 박진옥 박진희 박찬주 박혜철 박하임 박희성 방만식
배기봉 배소영 배주희 배춘실 변순영 변연식 서보혁 서영미 서애원 서유미
서정례 서정호 서진희 서창식 선소진 선순단 손수영 손영일(2개월) 손우정
손윤희 손정목 송금식 송무호 송상호 송상환 신동욱 신영철 신재현 신재훈
안건우 안병순 안희옥 안희옥 양계탁 양금순 양덕훈 양민석 양순주 양원진
여혜숙 연선민 오경혜 오기성 오미정 오지연 오재경 오혜숙 우문영
우미정 우성란 위선남 유영철 유중석 유근석 유동현 유영일 유영진 유은주
(2개월) 유재영 유정원 유호성 은종복 이경목 이경희 이경희 이광숙 이광중
이기묘 이현준 이혜경 이혜진 이숙기 이상미 이상재 이상진 이선숙 이선재
이상형 이수연 이수정 이항수 이수진 이수진 이순혁 이숙규 이숙무 이아를
이애용 이영옥 이 윤 이윤영 이은혜 이재필 이정숙 이정숙 이종남 이종수
이창호 이현준 이혜경 이혜진 박승철 박정철 임동원 임보라 임선화 임수아
임순례 임인식 임장혁 임진영 임태한 임호일 장기준 장남희 장성식 장정우
장진영 전성표 전현우 정광진 정김경숙 정상현 정소연 정영훈 정원진 정준영
정지현 정호천(2개월) 조계성 조영희 조정현 조창현 조현우 지미자(2개월)
진유식 진대준 채근식 채운석 천길환 최대우 최미화 최영환 최향숙 한문덕
한상근 한상옥 한선영 한중현(2개월) 한현실 한호석(2개월)형복순 홍기정
홍영의 홍영준 홍창의 홍희덕 황덕호(2개월) 황 완 황윤미 황철우 (후원)겨자씨교회

안동평통사

김석현 조선아 조한웅 최난희 고정희 권기춘 권영근 권주원 김대현 김동원
김두년 김순자 김영순 김예숙 김민숙 김재권 김종렬 김채현 김학배 마명락
민현주 박재근 박종익 손도숙 손현목 신광진 신성일 여상화 이경재 이매우
이성로 이태환 이혜선 장세길 정복순(2개월) 조병재 조영준 조준래 차명숙
최형석 한영선 김병성 윤지홍 강석주 김수동 김장식 김경희 김주철 김지섭
김판갑 김현택 박무식 박용제 박종규 배용환 유춘우 윤 창 이병현 이창 한철희
* 지난해에 '김현택' 계좌로 회비를 보내신 분들의 명단이 누락된 점 사과드립니다.

익산평통사

김미경 박창신 유희탁 정웅용 황영하 고은주 김중화 김현숙 노영래 박두식
서용 신헌우 안준 이문선 이은경 이종민 이진규 이해경 채운석 최미애 최재철
허명서 김성덕(2개월) 김순덕 김양용 김영옥 김원수 김은진 김창수 김희전
박은경 박지영 배병옥 백낙진 소병직 송동한 신귀택 심경희 안영목 안현석
유미정 유재동 유진우 이보미(2개월) 이복순 이석근 이웅신 이정철 이현숙
임탁균 정중수 전미영 전호정 정수진 정수진 조정권 채미진 최민욱 최영이
최인경 최희관 황익성 황인철 정운송 오기주 이병식 이정우 허정길 강익현
김대순 박영현 백선영 이근수 이화춘 이중구(2개월)김유순 하춘자

인천평통사

강명선 강영구 강원희 강인석 강정민 강준호 강한일 고상혁 고영남 공계진
곽준경 구동훈 권오승 김갑봉 김강연 김경민 김경순 김금옥 김도율 김동건
김동휘 김명중 김문경 김미경 김민정 김병철 김보희 김희겸 김봉은 김성기
김선경 이주는 김선미 최현호 김성기 김성태 김소희 김숙희 김연수 김오섭
김우경 김윤석 김윤조 김은숙 김익숙 김일희 김정녀 김정자 김정하 김중갑
김중호 김주숙 김중찬 김중현 김지수 정시호 김지훈 김현석 김현주 김형진
김희숙 남익현 류미애 문병호 문선희 문하나 이은순 박광선 박광식 박달수
박명옥 박병석 박순길 박순덕 박순이 박승주 박영민 박용희 박원재 박유순
박인호 박정숙 박정윤 박 진 박창현 박창훈 박현주 박혜진 백승우 백은정
서경애 서달원 서덕용 서영선 서재훈 서영수 소병옥 손선재 손정민 손현철
송경평 송금화 송재철 송정로 송한석 김민서 신용준 신윤래 신희철 심신아
심옥빈 심자섭 안영봉 안용원 양승조 어명석 오미경 오홍준 오창근 오혜영
원 웅 원종민 유근석 유성국 유정성 유한경 유현석 윤경재 윤성우 윤승하
윤영섭 윤인중 윤화식 최장수 이대준 이덕래 이동현 이만재 이무섭 이무용
이미경 이미영 이범철 권오승 이서준 이석기 이성로 이상수 이상은 이성희
이세규 이숙희 이순남 이순현 이안기 이윤희 이윤수 이우영 이우성 이은희
이은희 이윤희 이재술 이재우 이정옥 이정옥 이정희 이종민 이종철 이준걸
이창근 이현직 이춘식 이태현 이현구 이현숙 이현순 이혜경 이혜진 이희정
인수범 임경희 임동철 임재훈 임희호 장광수 장귀숙 장동훈 장세윤 장영호
정명락 정영숙 정미자 정승호 오수정 정영선 정현준 정용성 정희진
조경숙 조남순 조병규 조성래 조성재 조용수 조인희 조재호 지현민 지형철
최리주 최복래 최순규 최왕 최용 최정옥 최정임 최종락 최준배 최지숙 최현숙
추승완 추영호 하경자 하태준 한만승 한상복 한성원 한신복 한연숙 황선하
한영순 한정숙 한현진 한현희 한희관 허문애 허 중 허필자 흥 중 흥학기
황인철 황현숙

전주평통사

김미현 고영철 엄경희 임애림 최영숙 이상빈 전형석 심 훈 윤현주 최인규
박수배 한상기 손경원 최재훈 김운수 박미영 전상호 송주섭 이원순 신귀희
한금수 국윤호 원영재 임용진 하재호 이수원 서 승 김정임 백승환 송주섭
박기순 김성환 정기철 송기춘 서은숙 이형구 김병선 신선화 송호영 임익근
곽동순 조정현 최용기 김진성 황재현 채주병 송미영 봉형근 김주진 이윤백
정기동 김은미 국 산 고이석 허만승 박우성 최금희 권동용 고치원 유영진
이승렬 노재화 이동주 정형용 김여진 김효숙 장정우 양경자 방용성 백혜영
최정숙 조경희 이기봉 최영호 민혜경 김재범 심병호 김충만 오은미 이재호
이승희 서경희 김광재 이윤희 최갑성 이석영 국주영은 박대평 배은기 들꽃교회
전주향린교회

성남유인평통사(준)

김종국 장미라 허남해 김준기 김춘식 김표무 박종완 서덕석 심재상 원형석
이석주 이용위 이재범 정선희 정자혜 최병철 노병돈

김제 지역 회원

강병진 강용욱 권대정 김성순 김영미 김영하 김정환 김진원 김형태 나인권
나현균 남궁준 남성훈 노경두 노규석 박기주 박원용 박홍식 김원필 배영술
배준식 소광석 손은하 안지영 안진성 오인근 유성룡 유재철 이병철 이윤만
이은경 이현숙 장경태 장덕성 전미영 전철수 정현문 정영국 하기호 하성애
김창수 박병배 김창훈 이희곤 소귀자 문상봉 홍복사 이광아 허재우 조경희
양재식 아우관 김형기 나준이 이경록 정용희 정진국 문병선

마산창원진해 지역 회원

공명택 김봉현 김순희 김용환 김윤자 문상환 박승일 서금성 신경희 신윤혜
여영국 유소영 윤종근 이상익 이영순 차정진

평택 경기 지역 회원

강경남 김주성 서명성 손영민 이수정(2개월) 이진희 정인교 차지아로와라판
최신현 권오일 권차량 김교원 김민수 김성용 김상철 김성환 김영호 김용표
김준기 김택균 도영호 박성철 신종원 심우주 연창호 염영만 윤선호 이가영
이경수 이민재 이양진 장경란 조영성 조재길 조창형 최정해 추영배 하성주
한동수 한민규 한상근 한상진 황영선 황재순 민선인 이수용 이해준 현호현

제주 지역 회원

고권일 고훈 권형우 김광중(2개월) 김동원 김민수(2개월) 김성규 문무병 문배수
방은미 양윤호 오명애 오상진 오주연 이정훈 정영주 김옥춘 김중환

강원 지역 회원 김주목 민원식 이진석

평화통일연구소

[이사회비] 김경호 김영환 노재열 박진석 신정길 오동석 이정학 임승계 조현정
[후원회비] 강진희 김미경 류승화 민경숙 박복희 이미정 이범준 이선영 이광재
이정학 정향란 조미향 한양재 한혜영

* 회비 납부 문의 : 각 지역 평통사 사무국과 중앙 사무처

중앙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계좌번호 : 농협 539-01-145822 문규현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연 락 처 : 02) 712-8443 spark946@hanmail.net

서울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3-21-0339-741 서영석
연 락 처 : 02) 713-1992 seoul-spark@hanmail.net

서울남부평통사

연 락 처 : 010-9780-7139 형복순

부천평통사

주 소 : 14572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0번길 46 2층
계좌번호 : 국민은행 314802-04-004244 주정숙
연 락 처 : 032) 671-7179 bcspark0601@hanmail.net

인천평통사

주 소 : 22156 인천시 남구 주안동 608-5번지 201호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588-004005 김일희
연 락 처 : 032) 428-2230 icspark523@hanmail.net

대전충청평통사

주 소 : 34623 대전 동구 대전로867번길 한밭오피스텔 901호
계좌번호 : 하나은행 647-910051-38305 유영재
연 락 처 : 042) 635-5812 dcspark925@hanmail.net

보령평통사

연 락 처 : 010-2292-7883 김영석

익산평통사

주 소 : 54542 전북 익산시 고봉로36길 9-2
계좌번호 : 농협 514-12-028901 김대송
연 락 처 : 063) 832-0018 king208208208@hanmail.net

군산평통사

주 소 : 54077 전북 군산시 백릉안4길 6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4-21-0892-744 김판태
연 락 처 : 010-8860-2230 김판태

전주평통사

주 소 : 54954 전북 전주시 완수구 전릉로 38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506-01-323911 이승희
연 락 처 : 010-8283-4371 국산

광주평통사

주 소 : 61245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43길 광주YWCA 605호
계좌번호 : 광주은행 169-107-165626 정동석
연 락 처 : 010-5610-5230 정동석 kj-spark@hanmail.net

순천평통사

연 락 처 : 010-4623-6906 김용재

광양평통사

연 락 처 : 010-3022-0452 서광석

안동평통사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733-02-360613 김헌택
연 락 처 : 010-4312-3939 조한웅

대구평통사

주 소 :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계좌번호 : 대구은행 076-13-161229 대구평통사
연 락 처 : 053) 428-0727 dgspark@hanmail.net

부산평통사

계좌번호 : 부산은행 062-12-007493-0 김건우
연 락 처 : 070-7809-4311 bsspark@hanmail.net

성남용인평통사(준)

연 락 처 : 010-2462-1377 서덕석
계좌번호 : 농협 351-0959-1481-63 서덕석

해남 010-5612-8125 박승규

무안 010-3645-2722 문영란

김제 010-9957-7478 손은하

목포 010-5610-5230 정동석

나주 010-3602-1849 이정훈

마산창원진해 010-2674-8510 김용환

상임대표 문규현 **공동대표** 고영대 문홍주 변연식 서창호 이일영 임종철 이천우 박상희 김병균

감 사 김광열 **문예위원장** 문홍주 **지도위원** 배종렬 노정선 명 진 박순희 조주형

자문변호사 권정호 김형태 이남진 장경욱

발행일 2017년 9월 27일 **발행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발행인** 문규현

주 소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 (충정로3가) 2층 **전 화** (02)711-7292, (02)712-8443 **팩 스** (02)712-8445

홈페이지 www.peaceone.org **전자우편** spark946@hanmail.net **후원계좌**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록번호 서울라 10482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03년 10월 9일

평화와 통일의 사도, 영원한 자유인, 향기로운 이웃

故 **홍근수** 목사

(평통사 전 상임대표)

4주기 추모행사

2017. 10. 7(토) 오후 3시 / 마석 모란공원

1회 **홍근수평화통일상** 시상식

2017. 10. 11(수) 오후 6시 / 향린교회 예배실

** 추모예배 10.11(수) 저녁 7:30 향린교회 예배실



문의 : 02-711-729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